

# 조선전기 경복궁의 침전(寢殿)과 후원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이 정 국\*

(다리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대표)

---

주제어 : 경복궁, 강녕전, 천추전, 경회루, 후원

---

## 1. 서론

궁궐은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크게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의 관료들과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중심공간인 정무공간(政務空間), 관리들의 업무공간인 쉼네각사 그리고 임금의 생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활공간이란 임금을 비롯하여 왕비와 빈, 궁주 등의 후궁, 그리고 왕자나 대비(大妃) 등 임금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환관과 여관(女官)들의 생활공간을 말하며 후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통합된 궁궐건축을 완성하기 때문에 궁궐건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선전기 궁궐건축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전(正殿)과 편전, 침전으로 이어지는 중심영역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중심영역의 건축공간에 대한 이해가 일정부분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심영역의 연구만으로 경복궁

의 건축 공간, 특히 오랫동안 공궐(空闕)되었던 정궁(正宮)의 공간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전기를 연구대상의 시기로 하였다. 조선전기 경복궁은 정궁으로 건설되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270여 년 동안 중건되지 못하여 시간적으로 단절이 있었고 관련된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의 공간구조에 대해 많은 부분이 미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선 후기의 그림들로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선전기 경복궁의 공간에 관한 연구는 궁궐건축의 통시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공간적으로는 경복궁의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중심영역 중에서 임금의 침전인 강녕전과 그 주변의 공간, 그리고 경회루를 비롯한 후원을 구성하는 건축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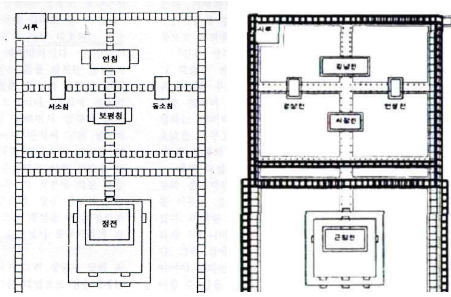
## 2. 중심영역의 건축공간

### 2-1. 창건시 중심부의 건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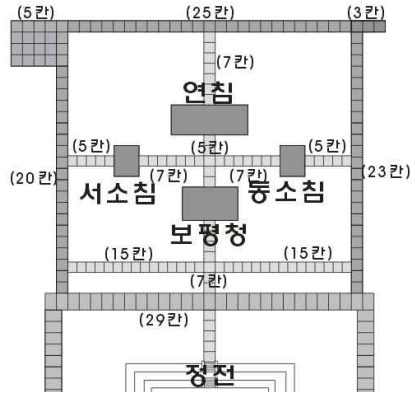
지금까지 태조 4년 경복궁의 창건기록을 바탕으로 창건 당시 경복궁 중심공간의 추정

---

\*교신저자, 이메일: ljk3491@hanmail.net



<그림 1> 추정배치도 (부분 김동욱)      <그림 2> 추정배치도 (부분 장재혁)



<그림 3> 경복궁 창건당시 추정배치도 (內殿부분)

복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다. 처음에 杉山信三이 『태조실록』의 창건기사를 바탕으로 추정복원을 시도하였는데 김동욱은 이를 수정하여 새로운 배치안을 제시하였다.<sup>1)</sup>(그림 1) 그리고 박순조의 추정배치안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김동욱의 추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후 장재혁이 약간 변화된 추정배치안을 제시하였다.<sup>2)</sup>(그림 2)

사료1

新宮燕寢七間 …… 北穿廊七間, 北行廊二十五間 東隅有連排三間, 西隅有連排樓五間, 南穿廊五間 …… 報平廳五間, …… 南穿廊七間, …… 自燕寢北行廊東隅, 止于正殿北行廊之東隅二十三間, 爲東行廊 自西樓止正殿北行廊之西隅二十間, 爲西行廊 以上爲內殿……<sup>3)</sup>

경복궁 창건기사인 사료1에 의하면 연침구역의 북쪽 행랑은 서루를 포함해서 모두 33칸이 된다. 그런데 동쪽의 3칸과 서쪽의 루 5칸이 ‘연배(連排)’했다는 것은 동서행랑 밖으로 돌출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

문에 동쪽의 경우 같은 행랑인데 별도로 3칸을 언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행랑의 서쪽 부분도 서행랑 밖으로 돌출되어야 할 것이다. 연침의 북쪽 행랑이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면 동서 행랑 사이의 간격은 25칸이 된다. 반면에 정전의 북쪽 행랑은 29칸이기 때문에 1칸의 크기가 같을 경우 연침과 보평청의 동서쪽 행랑은 정전 북쪽 행랑보다 안으로 각각 2칸씩 들어와서 형성된다. 만약 연침 북행랑의 ‘연배’하는 부분이 동서행랑의 안쪽에서 시작될 경우에는 정전 북행랑보다 1칸 정도 들어오게 된다.(그림 3 참조)

연침의 북쪽 천량은 7칸이며 또한 보평청의 남쪽 천량도 역시 7칸이다. 그리고 연침과 보평청 사이의 천량은 5칸으로 되어있다. 즉 연침의 북쪽 공간과 보평청의 남쪽 공간이 동일한데 연침과 보평청이 이 영역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보평청과 연침이 ‘내전(內殿)’이라는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좌우행랑의 규모를 기술할 때는 연침 북행랑동쪽 모서리에서 정전 북행랑의 동쪽 모서리까지 또는 서쪽 루에서부터 정전의 북쪽행랑까지 일괄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1)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통권 15호, 1998, 20쪽  
 2)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예사에서 나타나는 예제운영과 건축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건축대학원, 2004. 2, 90쪽  
 3) 『태조실록』 4년 을해(1395) 9월 29일(경신) 건축역사연구 제20권 6호 통권79호 2011년 12월

2-2. 중심영역의 공간 변화

경복궁의 건물위치를 기록한 고문헌이 몇 가지가 있다.<sup>4)</sup> 아래의 [표 1]은 『동국여지승람』과 『궁궐지(宮闕志)』에 나타난 중심영역의 침전공간과 후원의 전각들에 대한 위치를 요약한 것이다.<sup>5)</sup>

태조 4년에 창건된 경복궁은 정종 1년 3월에 개성으로 환도하면서 공궐(空闕)이 되었다. 이후 태종이 즉위하고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을 때도 태종은 이궁인 창덕궁에 머물렀다. 이후 세종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여 생활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축적되었다.

먼저 김동욱은 세종 11년에서 19년 사이에 사정전과 강녕전이 새로 지어지고 두 건물을

[표 1] 『동국여지승람』과 『궁궐지』에 보이는 침전영역과 후원의 전각 위치 비교

전각명	동국여지승람	궁궐지
강녕전	사정전북쪽	사정전북쪽
경성전	(西小寢)	(西小寢)
교태전	강녕전 북쪽	강녕전 북쪽
만춘전	(없음)	(없음)
사정전	근정전북쪽	근정전북쪽
양심당	강녕전 서북쪽	강녕전 서북쪽
연생전	(東小寢)	(東小寢)
천추전	(없음)	위치 미기재
함원전	강녕전 서북쪽	강녕전 서북쪽
흙경각	강녕전 서쪽	강녕전 서쪽
간의대	궁성서북모퉁이	궁성서북쪽구석
경회루	사정전서쪽	사정전서쪽
연은전	궁성서북모퉁이	궁성서북모퉁이
관저전	後苑	후원
서현정	後苑	후원
청량정	(없음)	위치미기재
충순당	後苑	후원
취로정	後苑	후원
화위당	(없음)	위치미기재

4) 이들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新增)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국여지승람』이 기록된 성종 이후 경복궁의 중심부나 후원에 위치한 건물의 증감이나 위치의 변화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비고』를 비교해보면 은정전(恩政殿)은 『승람』에는 기록이 없고 『비고』에는 위치미상이라고 했다. 천추전의 경우 『승람』에는 기록이 없는데 『비고』에는 위치미상으로 되어있다. 나머지의 내용은 같다.

5) 궁궐지의 경복궁조에는 다른 궁의 전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양의전(兩儀殿)이나 수문당(修文堂)은 창덕궁에 있는 전각이다. 그리고 대명전(大明殿)은 『국조보감』을 인용해서 '세조 원년(1456) 겨울에 대명전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기로(耆老) 220인이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록에 의하면 이때는 세조 2년 10월 1일의 일인데(『세조실록』 2년 병자(1456) 10월 1일(정유)) 그 이전에 개성부의 경덕궁(敬德宮)에 입어(入御)한 것을 보면(『세조실록』 2년 병자(1456) 9월 29일(병신)) 대명전은 개성의 경덕궁에 있던 전각이었다. 청심정(淸心亭)도 개성부의 궁궐에 있던 전각이다. (이러한 전각들은 표에서 제외하였음) 그리고 『增補文獻備考』나 『景宮誌』는 내용이 소략하고 위치가 기록된 전각이라 해도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비고』와 차이가 없어서 생략했다. 궁궐지의 경우 『宮闕志』(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편역, 1994. 12)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와 『景宮誌』는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국립문화재연구소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1995. 12)를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의 궁궐을 반영해주는 『동국여지승람』을 주요 전거로 하고 당시의 여러 사료들을 참고하여 경복궁 중심영역 중 침전과 후원의 건축공간을 추정하였다.

잇던 천량 대신에 다른 모습의 행랑이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6)</sup> 박순조는 문헌기록과 경복궁 침전지역발굴결과를 토대로 세종대 이후의 강녕전과 사정전 주변에 대해 추정복원을 시도하였으며 교태전 일곽에 대해서도 배치추정도를 제시하였다.<sup>7)</sup>(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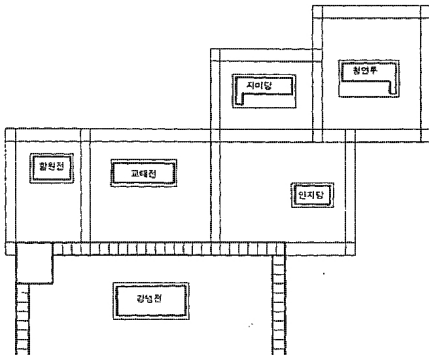
장재혁은 「경복궁도」와 「북궐도형」을 참고하여 정전의 북행랑이 남고 사정전 앞쪽에 동서방향으로 난 천량과 남쪽방향으로 난 천량이 없어져서 사정전 앞마당이 넓어졌는데 '상참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sup>8)</sup>(그림 5)

이상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종대 이후 경복궁 중심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창건 당시에는 사정전과 강녕

6) 김동욱, 위의 논문, 135쪽

7) 박순조,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4쪽 및 118쪽

8) 장재혁, 앞의 논문, 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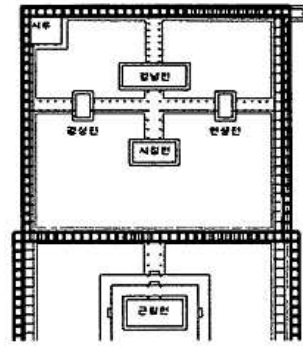


<그림 4> 세종대 이후 교태전 일곽의 배치추정도(곽순조)

전 사이에 천랑이 있었는데 천랑 대신 남랑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19년에 임금이 강녕전의 남랑을 수리하기 위해 동궁으로 이어하였다.<sup>9)</sup> 수리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남랑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세종 11년 1월에 사정전과 경회루를 중수하기 위해 상림원으로 이어를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사정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세종 15년 8월에는 강녕전을 고쳐짓기(改構) 위해 동궁으로 이어하였다가 50여일만인 9월 24일에 강녕전으로 환어했다. 이때 강녕전 조성제조를 둔 것으로 보아<sup>10)</sup> 큰 규모의 공사였을 것이다.<sup>11)</sup> 강녕전에 남랑이 설치됨으로써 강녕전과 사정전은 공간상으로 분리되었다.

창건 당시 중심영역의 내전(內殿)으로 사정전과 그 북쪽에 연침인 강녕전이 있고 동소침으로 연생전, 서소침으로 경성전이 있었지만 천추전과 만춘전은 없었다. 세종실록에는 천추



<그림 5> 세종대 이후 경복궁 내전영역(장재혁)

전과 만춘전이 등장하는데 이 두 전각의 창건 시기는 알 수 없다.

사료2

동궁으로 하여금 궐내에 들어와 있게 하고자 하는데, 강녕전·만춘전·천추전·연생전·경성전·사정전 같은 것은 이른 바 정궁(正宮)이고, 함원전·교태전·자미당·종회당·송백당·인지당·청연루는 내가 세운 자그마한 집인데 정궁이 아니니,……<sup>12)</sup>

사료2에 의하면 천추전과 만춘전은 정궁에 포함되는데 반하여 세종이 세운 건물은 정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으로 미루어 천추전과 만춘전은 세종 즉위 이전부터 존재했고 근정전과 강녕전 사이의 중심영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천추전과 만춘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동국여지승람』에는 별도의 기록이 없으며 『궁궐지(宮闕志)』에는 만춘전에 관한 내용은 없고 천추전도 위치가 기록되지 않았다.<sup>13)</sup> 그리고 『동국여지비고』에도 소개가 자제하지 않다고 한<sup>14)</sup> 것처럼 고종 중건 이전

9) 『세종실록』 19년 정사(1437) 8월 18일(을해)

10) 『세종실록』 15년 계축(1433) 8월 3일(계미) 및 윤 8월 26일(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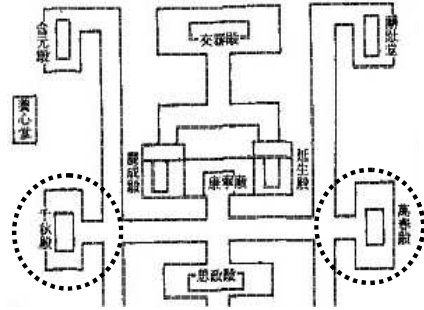
11) 세종 15년 강녕전 수리 도중인 윤8월에 중궁이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연 것으로 보아(『세종실록』 15년 계축(1433) 윤8월 6일(병진) 참조) 이때 사정전과 강녕전 사이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양로연을 연 것으로 판단해보면 이미 11년의 수리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세종실록』 31년 기사(1449) 6월 18일(병인)

13) 『궁궐지 I』, 서울시립대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12, 54쪽

시기에 만춘전과 천추전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없다.

비록 18세기 이후에 그려진 것이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하는 그림에는 대부분 사정전과 강녕전의 동서쪽 행랑 밖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경복궁전도』  
(부분, 삼성출판박물관)의 천추전,  
만춘전 및 침전영역의 배치

당시 만춘전과 천추전의 배치가 고종 중건 이후와 같이 사정전의 행랑 안쪽에 위치했다고 해도 사정전의 서쪽 행랑과 경회루 동쪽 담장 사이에는 흙경각이 들어설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그림 6>의 『경복궁전도』와 같이 만춘전이나 천추전이 사정전의 동서쪽 행랑 밖에 위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러한 배치에서는 천추전 서쪽에 흙경각이 있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뒤에서 보듯이 경회루는 태조 창건기사에 기록되어 있는 강녕전 서북쪽의 5칸 루(樓)를 대신해서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소루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소루가 있었던 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사료3의 3)은 문종이 강녕전에서 흥어(薨御)했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단종실록』에는 천추전에서 흥어하였다고 했다.<sup>20)</sup> 천추전이 사정전 영역에 있었다면 두 기록 중 하나는 잘못되었겠지만 천추전이 침전인 강녕전 영역에 있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료2를 보면 세종이 만춘전과 천추전을 강녕전과 연생전, 경성전 사이에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만춘전과 천추전이 강녕전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

사료3

- 1) 흙경각(欽敬閣)이 완성되었다.……각은 경복궁 침전 곁에 있었다.……이에 천추전 서쪽 뜰에다 한 칸 집을 세웠도다.<sup>15)</sup>
- 2) 강녕전 서쪽에 각(閣)을 한 채 세우고, 이름을 흙경각이라 하였다.<sup>16)</sup>
- 3) 유시(酉時)에 임금이 강녕전에서 흥(薨)하시니, 춘추가 39세이셨다.<sup>17)</sup>

사료3의 1)은 세종 20년에 흙경각이 완성되었을 때의 일로 흙경각이 경복궁의 침전 곁에 있었다고 했으며 김돈(金墩)의 기문에는 천추전 서쪽 뜰이라고 했다. 김돈의 다른 기문에서도 역시 흙경각의 위치가 천추전의 서쪽에 있었다고 한 것을<sup>18)</sup> 보면 흙경각은 분명 천추전 서쪽에 있었을 것이다.

사료3의 2)는 명종 8년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해서 대내(大內)가 소실된 후 흙경각을 중건할 때의 기록으로 흙경각이 강녕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료3의 1)에서 말하는 경복궁 침전은 강녕전이 분명하다. 이 기록들은 천추전이 침전인 강녕전 영역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회루의 동쪽에는 담장이 있었다.<sup>19)</sup> 만약

14) 이행(李衍)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비고편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京都)  
15)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1월 7일(임진)  
16) 『명종실록』 8년 계축(1553) 12월 26일(무술)  
17) 『문종실록』 2년 임신(1452) 5월 14일(병오)  
18) 『東文選』 제82권 記 簡儀臺記

19) 『세조실록』 3년 정축(1457) 10월 23일(계축) 참조  
20) 『단종실록』 총서. '3년 임신년 5월 14일 병오(丙午)에 문종이 경복궁 천추전에서 흥(薨)하니'

이다.

이상의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만춘전이나 천추전은 강녕전 영역에 위치했다고 추정된다.<sup>21)</sup> 특히 경복궁 침전영역 발굴조사에서 고종 증건 때 창건한 응지당(鷹祉堂)과 연길당(延吉堂)의 위치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랑유구가 발굴되었다. 이것은 강녕전 북쪽의 회랑유구로 강녕전 후면 어간에서 북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형태와 강녕전 동, 서 뒤편과 같은 폭의 1칸으로 북으로 곧장 올라가는 형태 등 3가지가 있다고 했다.<sup>22)</sup> 이렇게 강녕전 북쪽에 회랑이 있었다면 회랑과 연결되는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본 문헌의 내용이나 발굴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강녕전 후면의 회랑과 연결되었던 건물은 천추전과 만춘전으로 추정된다.

중종 38년에 경복궁의 동궁에서 화재가 발생해서<sup>23)</sup> 자선당과 승화당이 재가 되었고 임금의 창덕궁으로 이어졌다. 이후 동궁을 증건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인중에 이어 명종이 왕위를 계승하여 동궁 건설을 준비하던 중 명종 8년 9월에 경복궁 대내의 화재로 강녕전, 사정전, 흥경각이 모두 소실되었다.<sup>24)</sup>

#### 사료4

中廟在位之三十有八年癸卯春正月初七日景福宮東宮火 資善,承華諸殿宇 焚蕩殆盡中廟移御昌德宮 命置造成都監……今上即位之九年癸丑……九月十三日 因中人不謹火復起於康寧殿之後廊……南至于思政殿

21) 만춘전과 천추전에 관한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각의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다만 침전영역에 있고 문종이 이곳에서 흥어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소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國立文化財研究所 『景福宮 寢殿地域發掘調查報告書』, 1995년. 155쪽, 329쪽 및 332쪽 참조.

23) 『중종실록』 38년 계묘(1543) 1월 7일(임자)

24) 『명종실록』 8년 계축(1553) 9월 14일(정사)

之南廊 東至于康寧殿之外東廊 東北于清謙樓之南月廊 西北于含元殿之永泰門 北延于交泰殿 西南于慶會門 烈焰飛騰……名樓殿之僅存者 惟勤政, 慶會, 含元, 清謙而已……三月而始營 九月而斷手……凡爲殿者五 康寧, 思政, 交泰, 慶成, 延生 爲堂者二 紫微, 養心 爲閣者一 曰欽敬 爲閣者一 曰丕顯 門廊廳房以間計者 亡慮三百七十餘間架 名稱悉因其舊……以是年十二月甲申 上還御景福宮 三宮從之<sup>25)</sup>

사료4에 의하면 불이 강녕전의 후랑(後廊)에서 발생해서 남쪽으로는 사정전 남랑, 동쪽으로는 강녕전의 외동랑(外東廊), 동북쪽으로는 청연루의 남월랑과 서북쪽 함원전의 영태문, 북으로는 교태전, 서남쪽으로는 경회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재로 소실되었다. 교태전으로부터 사정전의 남랑과 경회문까지 소실되었다면 중심영역에 천추전이나 만춘전이 존재했을 경우 역시 소실되었을 것이다.

명종은 곧바로 수리를 명하여 경복궁 내에 영의정 심연원을 도제조로 하는 수선도감을 설치하고 명종 9년 3월에 영건을 시작해서 명종 9년 9월에 완공되었다고 했다. 명종실록에 의하면 명종 9년 9월 18일에 경복궁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황에게 경복궁 중수기를 짓도록 하였다.<sup>26)</sup> 이때 증건된 전각 전체의 간수는 370여 칸이고 각 건물의 명칭은 이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명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증건된 중심영역의 건물 명칭에 강녕전, 사정전, 교태전, 경성전, 연생전은 있지만 만춘전과 천추전은 없다. 근정전과 경회루, 함원전, 청연루가 겨우 남았다고 한 것을 보면 천추전과 만춘전이 존재했을 경우 소실되어야

25) 홍섭(洪澗) 『忍齋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景福宮重新記

26) 『명종실록』 9년 갑인(1554) 9월 18일(병진) 및 12월 14일(경진)

맞는데 증건된 건물 명칭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두 전각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퇴계의 경복궁 중신기에도 천추전과 만춘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sup>27)</sup> 즉 명종 8년 이후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종 때의 기록인 『동국여지승람』에도 천추전과 만춘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표1 참조) 이미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기 이전에 두 전각은 없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복궁 창건기사에 연침(燕寢)으로 기록된 강녕전은 왕과 왕비의 침전이라고 하였다.<sup>28)</sup> 그런데 그 북쪽에 정사를 논의하거나 연회를 베풀었던 공간인 교태전이 있다. 교태전을 가기 위해서는 강녕전이 통과동선이 된다. 물론 강녕전을 통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교태전이 왕과 왕비의 침실 후방에 위치한다는 것은 공간이용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사료5

1) 대전 좌우번(大殿左右番)과 반감(飯監)까지 합하여 6명, … 별사용(別司養) 14명, … 승전색 방직(承傳色房直) 2명, 사약방직(司藥房直) 2명, … 공비전 별감(恭妃殿別監)의 좌우번 12명, … 별사용 6명, … 승전색 방직 좌우 2명, … 사약방직 좌우 2명<sup>29)</sup>

2) 왕세자가 조복을 입고 왕비전(王妃殿)에 나아가 평상시에 뵈옵는 의식과 같이 하는데,<sup>30)</sup>

3) 왕세자의 악차(輿次)를 중궁 정문 밖에 설치하고, 상침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중궁의 자리를 중궁 정전(正殿) 북쪽 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sup>31)</sup>

4) 이른 아침에 …… 대전께 문안을 갔더니 술을 하사하셨고 곧 공의전의 앞으로 가서 문안하니 또 술을 주시고 또 의성, 종전께 가서 문안을 드리니<sup>32)</sup>

5) 아침부터 종일 출입할 시에 대전(大殿)의 각 색장은 영추문, 중궁·동궁·문소전의 각 색장들은 건춘문으로 출입하게 하고<sup>33)</sup>

사료5의 1)은 세종 때 대궐 안에서 신부(信符)를 차고 다닐 사람들의 수효를 정한 내용인데 음식을 담당하는 별사용이 대전(大殿)에 14명, 공비전에 6명이 각각 있고 명령의 출납을 담당하는 내시인 승전색의 방직이 대전과 공비전에 각각 2명씩 그리고 문의 열쇠를 담당하는 사약의 방직이 각각 2명씩 있었다. 사약은 『경국대전』에 대전(大殿)이 3명, 왕비전과 세자궁은 2명으로 정해졌다.<sup>34)</sup> 공비는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로 대전과 왕비전에 별도의 별사용이나 승전색, 사약방이 있다는 것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사료5의 2)는 왕세자가 왕비에게 조현(朝見)하는 의식으로 왕비전에 가서 왕비를 뵈게 되어 있다. 사료5의 1)이나 2)는 창덕궁에서의 일이지만 사료5의 1)은 조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복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료5의 3)은 정조(正朝)와 동지에 경복궁에서 왕

27) 「경복궁 중신기」에는 명종 9년 1월 11일에 한 번에 대내와 동궁의 터를 닦고서 4월에는 흥경각이, 6월에는 동궁, 8월에는 사정전, 비현각, 교태전, 연생전, 경성전, 양심당, 자미당이 차례로 완공되었고 9월에는 강녕전이 완공되어 준공하였으며 12월 갑신에 임금이 경복궁으로 환어하였다.(李滉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二記 景福宮重新記.)

28) 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 개정판, 195쪽 및 관순조, 앞의 논문, 39쪽

29) 『세종실록』 5년 계묘(1423) 2월 10일(신유)

30) 『세종실록』 3년 신축(1421) 10월 26일(을묘)

31) 『세종실록』 12년 경술(1430) 윤12월 28일(갑자)

32) 柳希春 『미암일기(眉巖日記)』 제3권 癸酉年 正月初一日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4. p.488 ‘早朝 …… 問安于大殿 蒙賜酒 遂至恭懿殿前問安 又蒙賜酒 又至懿聖·中殿前問安 懿殿又賜酒’

33)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5월 23일(병오)

34) 『經國大典』 권1 吏典 雜職 掖庭署

비가 왕세자의 조하를 받는 의식이다. 여기에서는 왕세자의 악차를 중궁의 정문에 설치하고 중궁의 자리를 중궁의 정전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즉 임금의 정전과는 다른 중궁의 정전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의미이며 사료5의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창덕궁의 왕비전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사료5의 4)는 선조 6년(1573년) 정월 초하루 문안인사를 드릴 때였는데 먼저 임금에게 문안을 하였고 공의전과 의성전, 그리고 중전에게 각각 별도로 문안을 드리고 있다. 위의 사료에서 보았듯이 임금과 중전은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안도 따로 드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왕비의 침전이 따로 있었고 강녕전은 임금의 침전이였다. 그래서 세종 때에도 언제나 대신들을 강녕전에서 소대(召對)했었고<sup>35)</sup> 명종 9년 화제에 의한 중건 이후 선수도감이 강녕전이 정사를 하는 곳이므로 억제(抑戒)와 무일편(無逸篇)을 중전처럼 써서 걸도록 요청한 것이다.<sup>36)</sup>

대전과 중궁전이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각 전각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대궐출입문도 달랐다. 사료5의 5)는 대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영추문으로 출입하고 중궁이나 동궁, 문소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궁궐 동쪽 문인 건춘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교태전은 세종 22년에 지은 건물로 『동국여지승람』에 강녕전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했다. 위의 사료3에 의하면 강녕전에는 후랑(後廊)이 있었다. 이것은 곧 강녕전으로 개방되는 북쪽의 행랑을 말한다. 즉 교태전에는 남랑이 없었다는 의미인데 교태전의 주변이 행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는지 또는 담장으로 되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sup>37)</sup> 태조 때 창건한 중심영역인 근정전과

강녕전이 이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교태전은 중심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료2에 의하면 함원전은 세종이 창건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함원전이 강녕전의 서북쪽에 있다고 했다. 사료4에 의하면 함원전의 영태문은 소실되었는데 함원전은 소실되지 않았다. 함원전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기<sup>38)</sup> 때문에 함원전의 문만 소실되었을 것이다. 함원전의 영태문이 함원전 정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sup>39)</sup> 함원전에 후문도 있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것으로 보아 다른 건물과 약간의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양심당은 세종 31년의 기록인 사료1에는 보이지 않고 세조 10년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데<sup>40)</sup> 『동국여지승람』에는 강녕전의 서북쪽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료3에서처럼 명종 8년 소실된 전각의 명칭에는 양심당이 보이지 않지만 명종 9년의 중건 명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당시 소실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문만 소실된 함원전과 흥경각의 사이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양심당은 행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sup>41)</sup> 『북궐도형』에는 함원전의 남쪽

37) 사료3에는 교태전의 행랑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담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경북궁침전지역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입진왜란 이전의 경북궁 중심영역과 고종 중건이후의 중심영역이 많은 부분에서 배치가 유사하다고 했다. 따라서 추정배치에서는 북궐도형을 참고하여 교태전주위에 행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38) 『중종실록』 8년 계유(1513) 12월 30일(갑자)

39) 궁궐에서 명칭이 있는 전각이나 궐내각사의 정문은 일반적으로 사정문, 보루각문, 승정원문 등과 같이 전각의 명칭이나 관아의 이름에 문자를 붙여 불렀다. 그리고 골목과 같은 통과교통에 위치하는 문들에 붙인 명칭은 전각이나 관아의 명과는 무관했다. 따라서 영태문도 함원전의 정문이 아닐 수도 있다.

40) 『세조실록』 10년 갑신(1464) 7월 12일(계해) 세종 말년에는 도중에 포기를 했지만 경북궁 북서쪽에 후궁 건설에 집중할 점과 문종 때 궁궐 영건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심당은 세조 때 건설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5) 『중종실록』 14년 기묘(1519) 7월 17일(무신)

36) 『명종실록』 9년 갑인(1554) 11월 21일(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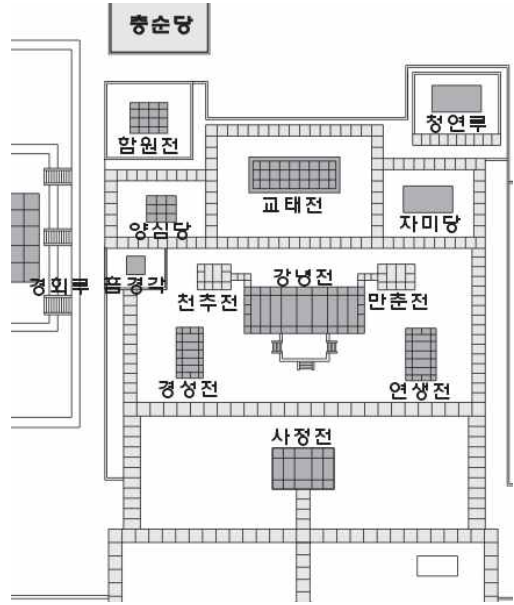


에 함원전과 같은 평면을 갖는 흠경각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도 역시 흠경각으로 추정하였다.<sup>42)</sup> 그런데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위치에 흠경각이 아니라 양심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미당도 세종이 창건하였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교태전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사료4에서 중건된 건물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역시 이때 소실되었다. 그렇다면 화재로 소실된 동북쪽의 한계선인 청연루의 남랑 남쪽에 위치해야 한다.

청연루도 세종이 창건하였는데 『동국여지승람』에 교태전 동쪽에 있다고 했고 사료3에서는 청연루는 소실되지 않고 남랑만 소실된 것으로 보아 이 전각이 자미당의 북쪽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랑이 중건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문랑청방 370여 칸이라고 기록되어 중건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실된 채 남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명종 12년에 청연루 근처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월랑을 짓도록 하고 있다. 청연루를 대왕대비, 왕대비 그리고 대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한 것을 보면<sup>43)</sup> 청연루의 행랑은 아니고 각 전(殿)에서 청연루로 연결시키는 월랑일 것이다. 또한 지세가 협착하다고 했는데 아마도 교태전 후부에 약간의 언덕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44)</sup>

이상의 문헌기록과 침전지역 발굴결과를 토대로 창건 이후 만춘전과 천추전이 존재했을 때 중심영역의 침전공간을 추정 복원해 보면 <그림 7>과 같다.<sup>45)</sup>



<그림 7> 중심영역의 침전과 경회루 주변 추정배치도(성종대(成宗代) 이전 만춘전과 천추전이 존재했을 당시의 추정배치도)

### 3. 후원의 건축공간

태조 4년 경복궁 창건 기사에는 후원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같은 날의 기록에 후원(後園)의 연못을 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46)</sup> 당시 후원이 있었다. 후원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후원이 있었다는 것은 일정한 영역을 담장으로 한정된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실록에 의하면 태조가 경복궁을 창건했을 당시에는 경복궁 전체를 둘러싸는 궁성(宮城)을 축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궁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태조 7년 1월부터인데 이때 태조가 남문에 나가 궁성 쌓을 터를 순시하고 있다.<sup>47)</sup>

41)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1월 8일(무오) ‘景福宮 養心堂廊廡失火救滅’

42) 『景福宮 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1995. 12, 163쪽

43) 『명종실록』 12년 정사(1557) 5월 11일(계해)

44) 국립문화재연구소 『景福宮 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1995. 12, 328쪽 참조

45) 이 그림은 세종 이후 성종대(成宗代)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며 성종대 이후에는 만춘전, 천추전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46) 『태조실록』 4년 을해(1395) 9월 29일(경신)

따라서 궁성이 없었던 창건 당시에는 중심 영역은 주변의 높은 행랑으로 공간을 제한하였고 중심영역 주변의 공간들은 담장(宮牆)이 있어 방어의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태조 4년 9월 경복궁 창건이후 2년이 넘도록 궁성을 쌓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언제 영건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태조 때 후원에는 양정이 있었다.<sup>48)</sup>

#### 사료6

1) 새로 큰 누각을 경복궁 서쪽 모퉁이에 지었다.……뭇을 파서 사방으로 돌렸다. 궁궐의 서북쪽에 본래 작은 누각이 있었는데, 태조가 창건한 것이었다. 임금이 협착하다고 하여 명하여 고쳐 지은 것이다.<sup>49)</sup>

2) 전하(태종) 즉위 13년 봄 2월에 뒷 대궐 서루(西樓)가 기울어지고 또 위태하므로 …… 지면을 헤아려서 살짝 서쪽으로 당기고, 그 터에 따라 약간 그 규모를 넓히어 새로 지었으며, 또 그 땅이 습한 것을 염려하여 누를 에워서 뭇을 팠다.<sup>50)</sup>

사료6의 1)에 의하면 경회루는 원래 태조 때부터 있었던 소루를 고쳐 지은 것(改營)이다.<sup>51)</sup> 이 소루는 창건기사의 강녕전 북쪽행랑

47) 『태조실록』 7년 무인(1398) 1월 20일(무진)

48) 『宮闕志』에는 『朝野僉載』를 인용해서 청량정(淸涼亭)에 대해 '태조 7년(1398) 무인에 무안군 방면의 난에 왕이 청량정에 이어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궁궐지』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년 12월, 56쪽) 이 청량정은 곧 서양정(西涼亭)을 말한다. (『태조실록』 7년 무인(1398) 8월 26일(기사) 참조)

49) 『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4월 2일(병진)

50) 河崙 「慶會樓記」 『東文選』 제81권 記

51) 실록에는 양정이 서양정(西涼亭)이라는 명칭과(『태조실록』 7년 무인(1398) 8월 2일(을사)) 북양정(北涼亭)이라는 명칭이(『태조실록』 7년 무인(1398) 윤5월 18일(계사)) 보이는데 양정이 보통명사인 것으로 보면 당시 서쪽과 북쪽에 양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서쪽의 양정을 '작은 양정(西小涼亭)이라 한 것을 보면(『태조

에서 서쪽으로 '연배(連排)'하여 만들어진 5칸의 루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소루가 기울어져서 고쳐지을 때 사료6의 2)에서처럼 원래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약간 옮기고 규모도 크게 하고 주변에 뭇을 파서 만들었다. 경회루가 완공된 것은 4월 26일이었지만 연못은 그 이후에도 계속 판 것으로 보아<sup>52)</sup> 연못이 완공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경회루는 태종 때 완공된 이후 세종 11년에 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는데<sup>53)</sup> 그 중에 성종 때의 경회루 중수공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성종 4년 7월에 근정전과 경회루를 중수하려는 논의가 있었다.<sup>54)</sup> 이 시기를 전후해서 경회루의 중수가 시작되었고 성종 5년 3월에 경회루의 역사를 마쳤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경회루의 중수공사는 계속되고 있었다.<sup>55)</sup> 결국 성종 4년 7월에 시작된 경회루의 중수공사는 6년 5월에 가서야 끝나게 된다.<sup>56)</sup> 이때의 중수공사는 1년 10개월 정도가

실록』 7년 무인(1398) 8월 26일(기사)) 이 기록에서 말하는 작은 누각(小樓)을 의미한다고 본다.

52) 『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4월 26일(경진) 그리고 경회루라는 명칭은 그 이후에 정해졌으며(『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5월 16일(기해)) 경회루를 영건한 목적이 중국의 사신에게 잔치나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다. 『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5월 16일(기해) 및 『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7월 19일(임인) 참조

53) 『세종실록』 11년 기유(1429) 1월 9일(병진) 이때 시작한 경회루 중수공사가 5월에도 계속되었고(『세종실록』 11년 기유(1429) 5월 15일(경신)) 6월 초 경회루에서 중국 사신에게 온집연(溫劇宴)을 베푸는 것으로 보아(『세종실록』 11년 기유(1429) 6월 7일(임오)) 그 사이에 완공되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세종 때 경회루 중수기록은 『세종실록』 15년 계축(1433) 7월 21일(임신) 및 『세종실록』 17년 을묘(1435) 8월 21일(경신)에 있다.

54) 『성종실록』 4년 계사(1473) 7월 17일(병오)

55) 『성종실록』 5년 갑오(1474) 3월 3일(무자) 및 같은 책 9월 18일(경오), 11월 9일(경신)

56)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5월 17일(을축)

소요되었는데 기존의 누각을 헐고 새로 지었고 돌기둥에 꽃과 용을 새기고 용마루와 처마가 궁륭(穹隆)하고 취두(鷲頭)를 구리로 만들어<sup>57)</sup> 호화롭게 장식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새롭게 영건했기 때문에 평면도 바뀌었을 것이다.<sup>58)</sup> 또한 경회루는 사방이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sup>59)</sup>

사료7

- 1) 경회루에서 입직한 내금위·총의위·별시위·사금·사복·진무 등의 말타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는데<sup>60)</sup>
- 2) 경회루 북쪽에서 진평대군·임영대군 및 사복관의 말을 잘 타는 자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sup>61)</sup>
- 3) 경회루는 물가이기 때문에 더욱 추울 것이고,…….지난번에는 눈이 내려 길이 막혀서 부득이 광화문 밖에서 실시했지만, 그 곳은 재주를 겨루고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아니어서, 말들이 함부로 뛰어 재주가 있는 자도 그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였다.<sup>62)</sup>

사료7의 1)에 의하면 세종은 경회루에서 위사(衛士)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것(騎射)을 관

람했는데 임금은 남면(南面)을 해야 하므로 기사는 연못의 남쪽에서 했을 것이다.<sup>63)</sup> 사료7의 2)는 세종 때 경회루의 북쪽에서 기사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대군과 사복관을 시켜 직접 말을 타고 시험하게 한 것이다.<sup>64)</sup> 즉 경회루의 남쪽이나 북쪽에서 모두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일을 했었다. 말을 타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사료7의 3)은 무과시험을 치를 때의 일인데 경회루는 물가라서 춤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광화문의 대로에서도 말을 달릴 만한 곳이 아니라 했다. 이곳이 말 타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경회루의 남북에는 최소한 광화문의 대로보다 넓은 공간이 있었으며 이 주위로 담장이 있었다.<sup>65)</sup>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내사복은 영추문 안에 있다고 했는데<sup>66)</sup> 간의대를 경회루 북쪽에 설치하고 사복시 안에 집을 지어 서운관원이 숙직하게 하여 한 것을 보면<sup>67)</sup> 사복시는 간의대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한 세종 때 사복시의 남쪽에 사표국을 둔 것으로 보아<sup>68)</sup>

63) 세조 때 경회루 남쪽에서 보사(步射)를 행하였다.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10월 22일(계미) 참조

64) 또한 임금이 경회루에 임어하면 시위군의 하나인 우림위에서는 경회루 북쪽의 숲에서 호위하였다. 金宗直 『佔畢齋集』 시집 제23권 詩 '五月十七日上御慶會樓下議政府六曹進豐呈' 참조

65) 그런데 명종 이후로 경회루에서 무과시험이나 관무재(觀武才)에서 기사(騎射)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명종실록』 12년 정사(1557) 4월 7일(경인) 참조

66) 李衍 『新增東國輿地勝覽』 2권 京都下 文職公署條

67) 『세종실록』 15년 계축(1433) 7월 21일(임신)

68) 사표국은 염초(焰硝)를 제조하는 곳인데 문종 때에는 이를 군기감이 관장하였지만(『문종실록』 1년 신미(1451) 6월 8일(을해)) 사표국의 관직명이 세조 때까지 보이는 것으로(『세조실록』 3년 정축(1457) 9월 24일(을유)) 보아 사복시 남쪽의 사표국은 이때도 존재했었다. 그런데 예종 때에는 서소(西所)의 군사입직처로 사복시의 남쪽에 초가를 짓도록 하였는데 이곳은 아마도 사표국의 자리였을 것이기(『예종실록』 1년 기축(1469) 5월 7일(경인)) 때문에 이때 사표국은 없어졌을 것이다.

57) 『성종실록』 5년 갑오(1474) 8월 22일(갑진) 및 6년 을미(1475) 5월 12일(경신)

58) 세조 때에는 동편방이 있었다.(『세조실록』 3년 정축(1457) 7월 20일(신사)) 그런데 중종 때 세자의 서연을 경회루 아래 한쪽에 장막을 치고 하겠다는 것을 보면(『중종실록』 26년 신묘(1531) 7월 8일(기미)) 세조 때의 편방이 없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59) 경회루에는 동장문(東牆門)이 있었으며(앞의 각주 19) 참조) 남문과 북문도 있었다.(『명종실록』 즉위년 을사(1545) 9월 8일(무진) 및 申叔舟 『保閑齋集』 卷第十五 序 御製詩序 ('移席慶會樓北墻底 命宗親及入直諸將 瞻射')) 그리고 서북쪽에는 사복시가 있었던 것을 보면 사복시와 경회루 사이에 담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0) 『세종실록』 6년 갑진(1424) 8월 28일(경오)

61) 『세종실록』 15년 계축(1433) 3월 11일(갑자)

62) 『중종실록』 36년 신축(1541) 11월 2일(갑진)

사복시는 경회루의 서쪽보다는 서북쪽에 위치해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의대는 세종 때 설치했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궁성의 서북쪽 모퉁이에 있다고 했다.<sup>69)</sup> 원래는 경회루 북쪽 담 안에 있었고<sup>70)</sup> 높이가 31척이고 길이는 47척, 폭은 32척으로 쌓고 석란(石欄)을 둘렀다.<sup>71)</sup> 이후 세종이 별궁을 지으려고 간의대를 북쪽으로 옮겼으며<sup>72)</sup> 연산군 때에는 간의대를 뜯어버렸는데 중종 때 다시 수리를 했다.<sup>73)</sup>

세조 8년에 경복궁의 서북쪽에 세자궁을 세웠다.<sup>74)</sup> 원래 간의대를 헐고 그 돌을 이용하여 세자궁을 세우려 했는데 세조 14년에 간의대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헐지 않았을 것이다.<sup>75)</sup> 세자궁은 간의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sup>76)</sup> 간의대가 궁궐 안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세자궁은 경복궁의 북성문과 후원의 북문<sup>77)</sup>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연은전(延恩殿)은 성종의 부(父)인 덕종의 신주를 봉안한 전각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연은전은 경복궁 성 안의 서북 모퉁이에 있었는데<sup>78)</sup> 성종 때 세자궁을 연은전으로 사용한 것이다. 성종 6년 10월 15일에 옛 세자

궁이 신전을 짓는데(作新殿) 합당하다고 하여 연은전이라 하였고 불과 6일 후에 덕종의 위판(位板)을 봉안한 것으로 보아<sup>79)</sup> 새로 짓지는 않았으며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간의대가 보이는 북쪽의 담장만 높이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은전이 전전(前殿)과 후전(後殿)으로 구성되었는데<sup>80)</sup> 이 공간구조가 세자궁과 같은 배치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은전이 위치한 장소는 경복궁 동쪽에 있었던 문소전과 비교할 때 지세(地勢)가 낮은 곳이어야 했다.<sup>81)</sup>

경복궁의 후원에는 사복문(司僕門)이 있었는데 성종 때 상원문(上苑門)으로 바꿨다.<sup>82)</sup> 사복문이라 한 것은 내사복시와 관련된 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원문은 연은전에 시선(視膳)을 위해 나갔던 문이다.<sup>83)</sup> 이상으로 보면 남쪽에 내사복시가 있었고 그 북쪽에 연은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궁장(宮牆)이 있었다.

그림8에서 경복궁 지형을 보면<sup>84)</sup> 경복궁의 서북쪽에 약간 솟은 언덕이 있고 언덕의 서쪽 아래에 고종의 경복궁 중건 때의 건물인 태원전과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고종 때의 경복궁 중건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지형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곳의 언덕은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조 때의 세자궁은 언덕의 서쪽, 태원전 권역에 위치했었다. 특히 세조가 중궁과 함께 세자궁의 동쪽언

69) 李荇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京都上 宮闕條

70) 『세종실록』 15년 계축(1443) 7월 21일(임신). '慶會樓北垣牆之內'

71) 金墩 『簡儀臺記』 『東文選』 제82권

72) 『세종실록』 24년 임술(1442) 12월 26일(임자) 및 『세종실록』 25년 계해(1443) 7월 8일(신유) 등 참조

73) 『연산군일기』 11년 을축(1505) 11월 24일(을사) 및 『중종실록』 9년 갑술(1514) 5월 20일(임오) 참조

74)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12월 10일(경오)

75)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2월 23일(무자) 및 『세조실록』 14년 무자(1468) 9월 4일(경신)

76)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10월 13일(기축)

77) 『세조실록』 10년 갑신(1464) 12월 4일(계미)

78) 李荇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경도상 丹朶조

건축역사연구 제20권 6호 통권79호 2011년 12월

79)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10월 15일(신묘) 및 21일(정유) 참조

80) 『성종실록』 18년 정미(1487) 2월 15일(을유)

81)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10월 12일(무자)

82)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8월 23일(기해)

83) 『중종실록』 28년 계사(1533) 10월 6일(을해)

84) <그림 8>은 『북궐도형』을 기본으로 하여 문화재청, 『경복궁 변천사(下)』 2007, 179쪽에 수록된 「경복궁 전체 배치도(2006년)」의 등고선과 주변 궁성(宮城)을 참고하여 변형시킨 자료임

덕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sup>85)</sup> 동쪽 언덕이란 태원전 동쪽에 위치한 언덕을 말하는 것이다.

후원에서는 병조당상과 입직한 도진무 각각 1명이 내금위와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기사(騎射)를 하기도 하고 입직한 군사들에게 3일마다 소형명(小形名)을 써서 습진(習陣)을 하게 하였다.<sup>86)</sup> 따라서 후원도 많은 군사들이 기사를 하거나 비록 작은 규모의 형명이지만 진법을 연습하기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였다.

충순당(忠順堂)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후원에 위치하였는데<sup>87)</sup> 실록에는 후원의 거칠고 소활한 곳이라고 하였다.<sup>88)</sup> 아마도 후원의 별관에 위치했을 것이다. 또한 공장 밖에 있어 대내와 막혀있다고 했는데<sup>89)</sup> 궁장이란 대내를 둘러싼 담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8 참조)

사료8

- 1) 충순당에 이어하려고 후원의 문 밖에 이르러 임금이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濬)의 어깨에 기대어 충순당에 이르렀는데<sup>90)</sup>
- 2) 내농작(內農作)의 모든 기구를 후원에 배설하였는데, 왼편은 경회루 북쪽 첫 섬돌로부터 북쪽 담장 소문 안까지 이르렀고, 오른편은 충순당 앞 섬돌로부터 취로당 앞까지 이르렀다.<sup>91)</sup>

사료8의 1)은 세조가 병환 때문에 충순당으로 이어하려고 할 때의 일인데 후원의 문 밖이라는 것은 대내에서 후원으로 나가는 문이고 그 문을 나아가 충순당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충순당이 대내 밖의 후원에 있었다.

사료8의 2)는 농기구를 배설했는데 남쪽의 충순당에서 후원을 가로질러 북쪽의 취로당 앞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충순당은 후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료에 의하면 경회루 북쪽의 섬돌에서 취로당 까지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sup>92)</sup> 충순당에서 북쪽의 취로정으로 가는 길에 다리가 있었다.<sup>93)</sup>

화위당(華韡堂) 역시 후원에 있었는데 경서(經書)를 강(講)하거나 사후(射侯)를 하고, 술 자리를 베풀(設酌)었다.<sup>94)</sup> 그리고 회위당에는 동림정(東林亭)이 있었으며 문소전과 가깝다고 했는데<sup>95)</sup> 경복궁 북동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화위당은 세조 이후에는 명칭이 보이지 않고 『동국여지승람』에도 없는 것을 보면 없어졌거나 명칭이 바뀌었을 것이다.

취로정(翠露亭)은 『동국여지승람』이나 실록에는 후원에 있다고 하였는데<sup>96)</sup> 세조 2년에

91) 『중종실록』 9년 갑술(1514) 1월 14일(무인)

92) 각주19)에서 보듯이 경회루의 동쪽에 담장이 있었다. 만약 경회루 동쪽에 담장이 있었다면 사료7의 2)의 경우 공간이 나뉘기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세조 때까지는 경회루의 동쪽에 담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롭게 지었던 성종 때 경회루의 공사에서 동쪽의 담장을 제거했을 수도 있다.

93) 『중종실록』 32년 정유(1537) 3월 14일(계사)

94)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7월 16일(기유), 10월 19일(경진), 9년 계미(1463) 4월 18일(정축) 등 참조

95) 『세조실록』 7년 신사(1461) 5월 16일(을묘) 및 『세종실록』 27년 을축(1445) 1월 8일(임오)

96) 李荇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京都上 苑圃條. 및 『명종실록』 17년 임술(1562) 5월 15일(무술)

85) 『세조실록』 9년 계미(1463) 6월 15일(계유)

86)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9월 8일(기해) 및 9년 계미(1463) 8월 27일(계축) 참고로 예종 때 침중(疊鍾)하여 모인 쉼내 입직군사가 2천1백63인이었다.(『예종실록』 1년 기축(1469) 6월 2일(갑인) 참조)

87) 李荇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권 京都上 苑圃條.

88) 『인종실록』 1년 을사(1545) 7월 1일(신유)

89) 『문종실록』 즉위년 경오(1450) 6월 25일(정유) 그리고 ‘금원(禁垣) 밖’이라고 표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단종실록』 1년 계유(1453) 10월 13일(병신) 참조

90) 『세조실록』 12년 병술(1466) 9월 28일(병신)



<그림 8> 경복궁 북쪽 후원지역의 각 전각의 추정배치도

영건하였고 앞에는 못을 파 연꽃을 심었다.<sup>97)</sup> 취로정 남쪽에는 관가(觀稼) 하기 위하여 개간한 논 두서너 경(頃)이 있었으며<sup>98)</sup> 서쪽에는 언덕이 있었다.<sup>99)</sup> 앞에서 보았듯이 취로정은 충순당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서현정(序賢亭)은 후원에 있다고 하였다. 서현정에서는 충순위(忠順衛)의 기사(騎射)와 보사(步射)를 구경하거나, 군사(軍)의 습진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sup>100)</sup> 후원의 북쪽에 위치하여 습진을 구경하거나 지시하기 좋은 곳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취로당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sup>101)</sup> 판단된다.

이상으로 살펴본바 후원에 있는 각 전각들의 배치를 추정해보면 그림8과 같다. 그리고 후원에 있는 기타의 전각들로는 관저당(關雉堂), 백자정(栢子亭), 은행정(銀杏亭)<sup>102)</sup> 등이 있었다.

#### 4. 결론

지금까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기본으로 하고 실록과 문헌자료 및 발굴자료 등을 통하여 조선전기 경복궁의 침전과 후원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7) 『세조실록』 2년 병자(1456) 3월 5일(갑술)

98) 『세조실록』 5년 기묘(1459) 4월 22일(계유) 및 『중종실록』 32년 정유(1537) 3월 14일(계사)

99) 『세조실록』 13년 정해(1467) 2월 14일(경술)

100) 문종실록』 1년 신미(1451) 3월 22일(신유) 및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9월 21일(임자) 또는 10월 19일(경진) 등 참조

101) 『명종실록』 16년 신사(1521) 7월 26일(을해) 참조

102) 『명종실록』 17년 임술(1562) 3월 10일(갑오)

창건 추정배치에서 연침 북쪽행랑의 ‘연배’ 한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는 동쪽부분만 돌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서쪽 역시 ‘연배’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서루도 동쪽과 마찬가지로 돌출되었으며 후에 서루가 옮겨져 경회루가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종 중건 이후의 만춘전과 천추전은 사정전의 동서쪽에 위치하지만 조선전기에는 강녕전의 북동과 북서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만춘전과 천추전은 늦어도 명종 8년 9월 또는 빠르면 成宗代에 이미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강녕전은 임금의 침전이었으며 왕비의 침전은 중심영역의 동쪽에 별도로 존재했다. 교태전의 서쪽에는 양심당과 함원전이 있었으며 동쪽에는 자미당과 청연루가 있었다.

창건당시 중심영역의 침전과 주변 공간의 추정배치는 <그림 3>과 같으며 이후 만춘전과 천추전이 존재했을 때의 추정배치는 <그림 7>과 같다.

경회루는 남쪽과 북쪽에 기사(騎射) 등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며 그 주위 사방을 담장으로 둘러싼 공간이다. 그리고 성종 이후에는 담장의 일부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복궁 북쪽의 후원은 기사뿐만 아니라 습진(習陣)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며 이를 위한 전각들이 배치되었다.

후원공간에 위치하는 각 전각의 배치에 대한 추정은 <그림 8>과 같다.

번역본 및 원문)

4. 『조선왕조실록』 태조~선조 (고전번역원 제공의 번역본 및 원문)
5. 柳希春, 『미암일기(眉巖日記草)』 제1~5집 潭陽鄉土文化硏究會(번역본), 國學資料院, 1982(원문)
6. 國立文化財硏究所, 『景福宮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1995년
7. 곽순조, 「宮闕運營을 通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통권 15호, 1998
9. 장재혁,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형식에 관한 연구 : 예서에서 나타나는 예제운영과 건축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2004. 2
10. 조재모, 「朝鮮時代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

접수(2011. 10. 11)

수정(1차: 2011. 11. 24, 2차: 2011. 12. 10)

게재확정(2011. 12. 13)

#### <참고문헌>

1. 『經國大典』 (국회도서관제공(누리미디어) 국역본 및 원문)
2. 『宮闕志 I』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번역, 1994. 12
3.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번역원제공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pace of Bed Room and Backyard at Gyeongbokgu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Yi, Jeong-Kuk  
(Dari Architects & Engineer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space of Chimjeon (寢殿), the King's Bedroom, and Backyar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Royal palac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political space for King, living space for King and his family and government office. So first, we shoul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n the Royal Palace.

Up to now we have looked at the architectural space of the King's Bedroom in the central area and Backyard in Gyeongbokgung (景福宮), one of the Royal Palac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Cheonchujeon (千秋殿) and Manchunjeon (萬春殿) were not both sides of Sajeongjeon (思政殿), were on the north side of Gangnyeongjeon (康寧殿)

Gangnyeongjeon was not a bedroom for the King and Queen, only for King. Bedroom for Queen was located another space in the Royal palace.

There was Hamwonjeon on the west side of Koytaejeon. Jamidang and Cheongyeonroo were on the right side of Koytaejeon

The Backyard on the north side of Gyeongbokgung had a wide area for horseback archery and the practice of battle formation

The arrangement of the King's bedroom in the central area was assumed like as the Fig 7. and Fig 8.

---

Keywords : Gyeongbokgung, Gangnyeongjeon, Cheonchujeon, Gyeonghoiroo,  
Backyard

---